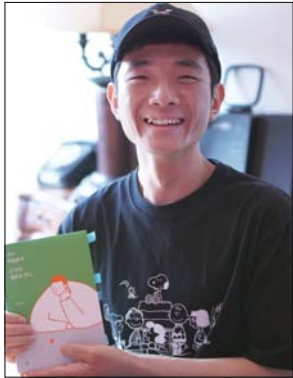


1009일간 병상기록 · 가족사랑 담아

23살, 고3 이주완 학생 백혈병 투병기 책으로 펴내 화제



“제삼이 2016년 3월 28일에서 멈춰 버렸다”
고3 수험생이 자신이 겪었던 1009 일 간의 병상 기록과 애틋한 가족사랑을 담은 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주완 학생(전일고 3·사진)이 펴낸 ‘생의 마침표에, 천일의 침묵을 찍다’(레드우드)가 그것이다.
건강했던 19살,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리며 학생회장 선거에 당선된 후 고3이라는 시간을 더 힘차게 보내려 했던 이주완 학생.
그는 갑작스레 백혈병 진단을 받

고 삶의 모든 방향은 병의 치료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걸게 된다.
척수항암치료, 골수검사, 조혈모세포 이식 등 수많은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마주했던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고 그는 올해 23살의 나이에 다시 고3이 돼 학교로 돌아왔다.
이주완 학생은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일을 꿈꾸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됐고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책을 쓰게 됐다”며 “제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각자의 희망과 행복을 찾고 소중한 일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주완 학생은 자신의 투병 일기 초고를 출판사 30곳에 보내 모두 4곳에서 응답을 받았다. 그 중에는 대기업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소개해 줄 출판사를 선택. 지난 8월 출간됐다.
올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통해 열심히 대입을 준비 중이다”며 “이번 책이 저의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더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첫장부터 끝장까지 술을 읽히는 책을 쓰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기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유산답사 참가자 모집

전북교육문화회관(관장 고광휘)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유산답사’와 ‘학부모와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 등 두 가지다.

‘문화유산답사’는 오는 26일 고창 고인돌 박물관 및 고인돌군에서 진행된다. 고인돌박물관 견학과 VR체험, 선사시대 토기 굽기 체험을 비롯해 죽림리 고인돌군과 마한 봉덕리 왕릉 탐방 등의 일정이다.

‘현장체험학습’은 27일 전북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펼쳐진다. 반딧불이, 빛을 품은 날개를 찾아라!는 강의를 통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반딧불이를 직접 관찰하며 반딧불이의 일생과 빛을 내는 과학적 원리를 알아볼 수 있다. 또 아토피 비누만들기, 독서대 목공예품 등도 마련된다.

한편 신청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4~2학년자로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회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순으로 마감하며, 중복신청은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관 문화예술교육과(063-270-1625)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윤애)는 ‘전국릴레이 양성평등 페스티벌’ 온라인(ZOOM)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 경각심 높다

‘전국릴레이 양성평등 페스티벌’ 온라인 토크콘서트 성료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윤애)는 ‘전국릴레이 양성평등 페스티벌’ 온라인(ZOOM)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도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1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로 4번째 추진하는 전국 릴레이 양성평등 페스티벌은 전국 13개 유관기관이 공동협력해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릴레이로 이어가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다양한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서 비대면(온라인ZOOM)으로 실시간 영상 토크 형태로 진행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고생(6,423명)대상으로 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 비율이 전체의 11.1%로, 만남 유인 피해까지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2.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미디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강연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사례

중심 자유토록을 초·중·고·대·연구회 소속 이산에 강사를 초청해 실시간 피드백으로 궁금증 해소의 기회가 주어졌다. 특히 이번 릴레이 토크콘서트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청소년들의 켄더감수성 향상 및 무심코 지나쳤던 불평등한 미디어를 켄더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변화의 자리를 마련한 행사였다.
이윤애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센터는 온라인 참여를 활성화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켄더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디어의 영향력은 평등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발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격리환자 10명 중 4명 60대 ↑

종교시설 · 의료기관 · 요양시설 · 방판서 감염

최근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 가운데 40% 가량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질병관리청(청장 정경숙)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방대본의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3433명이다. 2주간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4600명에서 3433명으로 1227명이 감소했다.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 3433명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1362명으로 전체 격리 치료 환자의 39.7%를 차지한다.
60대 이상 격리 환자 가운데 위중·중증 환자는 10%인 137명이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12일까지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6.5명으로, 직전 2주간(8월16~29일) 299.7명보다 123.2명 감소했다. 특히 최근 1주간(9월6~12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34.6명으로, 직전 1주(8월30일~9월5일)보다 88.8명 줄었다.
최근 2주간 수도권에선 하루 평균

13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1주간엔 하루 평균 98.9명이 나왔는데, 직전 1주보다 83.2명이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33.3%에서 38.1%로 증가한 반면, 20~30대 확진자 비율은 23.1%에서 22.1%로 줄었다.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2338명의 확진자 가운데 선별 확진자와 접촉한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33.5%를 차지했다. 뒤이어 국내 집단발생 확진자 722명(30.9%),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조사 중인 확진자 549명(23.5%)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방문판매·설병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아날 낮 12시 기준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63명) ▲서울 영등포구 일련정종 포교소 관련(23명) ▲서울 은평구 수색성당 관련(5명) ▲평택 서해교회 관련(35명) 등이 있다. 의료기관 확진자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관련 29명, 서울아산병원 관련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경우 이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및 남양주 참사랑요양원 관련 확진자가 각각 18명이었다. /뉴시스

국립대 정책 방향성 · 지역중심대 역할 논의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

온라인 화상회의로 최근 진행된 2020년도 제2차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학교 정책 방향성 및 지역중심대학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개진됐다.
화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지역중심대 발전방안’이고, 대화동향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한국형 지역국립대 발전 모델’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절실한 상황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각 대학 총장들이 교내에 구축된 영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지역중심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원과 총장 및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발대 최병욱 총장은 “2000년대부터 대두된 대학 혁신방안의 핵심은 대학 체제 혁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중심대학이 소외되고 있다”면서 “대

학통합네트워크가 논의 단계부터 지역중심대학이 배제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지역중심대학 중심의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날 회의에서는 2020년 국가교육회의(대통령 직속)가 거점국립대학 중심의 국립대 연합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제안한 데 대한 방향성 논의도 개진됐다.
거점대 기반의 통합네트워크의 문제점으로는 ▲지역거점대학은 연구중심, 지역중심대학은 교육중심이라는 뚜렷한 역할의 차별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비한 점 ▲지역중심국립대학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무한 점 ▲지자체 및 산업계의 요구가 파악되지 않은 점 ▲지역균형발전전략에서의 고민이 미비한 점 등이 거론됐다. 개선방안으로는 ▲지역중심국공립대학의 대학별 특수성 고려 ▲대학별 특수성과 지역·산업을 연계 및 고려한 다양한 발전모델 도출 ▲지역중심대학 간의 연합 및 협력프로그램 ▲지역중심대학과 정부 소통 ▲기획재정협의회를 활용한 의견수렴 등이 제안됐다. /군산=김영봉 기자



부안군의회

**전주매일신문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민과 공감하는 부안군의회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신리받는 열린의회

